

사랑할까, 먹을까?: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의 관계

Loving or Eating?: Eating Meat and Mind Perception toward Animals
and Sexually Objectified Women

신홍임^{1†}

Hong-Im Shin^{1†}

Abstract

Do animals have a mind? Our understanding about whether animals have minds depends on our relationship with animals, as we cannot determine animals' actual minds. These two studies presented here thus examined the meat paradox, that is, an inconsistency between love for animals and the act of enjoying eating meat in the context of mind perception. Study 1 examined whether mind perceptions toward various animal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experience-related capacities, such as feeling pain, and agency-related capacities, such as having self-control. In Study 2, mind perceptions toward cows and sexually objectified women we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food condition and non-food condition. In the food condition (experimental condition), cows were portrayed as products for meat consumption, whereas in the control condition, they were described as animals living on a farm, eating grass. The results of Study 2 demonstrated revealed that mind percep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ow morally incorrect it was to eat animals. Study 2 thus demonstrated that the scores of mind perception toward cows and sexually objectified wome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These reduced mind attribu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implied that people may be motivated to reduce cognitive dissonance between their attitudes toward animals, such as loving them, and their behaviors, such as, eating meat. In add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bjectification toward animals may impact the objectification and mind perception toward human beings as well.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role of dissonance reduction in the meat paradox and objectification theory so as to understand basic psychological processes involved while making moral choices in everyday life.

Key words: Mind Perception, Eating Meat, Cognitive Dissonance Theory, Objectification, Morality

요약

동물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동물의 마음을 실제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동물의 마음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와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모순적 관계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맥락에서 두 개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다양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경험의 차원과 주도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소를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과 고기가 아닌 동물로 기술한 통제조건에서 소와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정도가 높을수록 고기를 먹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평정점수가 높았다. 연구 2에서는 소를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소와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통제조건보다 낮게 나타

^{1†} (교신저자) 신홍임: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육중점 전임교원 / E-mail : shin7038@naver.com / TEL : 053-810-7831

났다. 따라서 동물이 ‘고기’로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조정을 통해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인지부조화이론에 따라 고기를 먹는 행동과 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고자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객체화는 인간에 대한 객체화 및 마음지각에 영향을 끼침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마음지각, 인지부조화이론 및 객체화이론이 일상에서의 도덕성과 연관된 태도와 행동의 모순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마음지각, 고기를 먹는 행동, 인지부조화, 객체화, 도덕성

1. 서론

동물을 사랑하면서,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고기요리는 먹는 즐거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인류의 고기소비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으며, 인간은 더 이상 살기 위해 먹지 않고, 즐기기 위해 고기요리를 먹는다(Foer, 2009).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1.3kg이다(Yoon, 2016). 한국인은 이 중 돼지고기(24.3kg)를 가장 많이 소비했으며, 닭고기는 15.4kg, 쇠고기는 11.6kg을 소비했다. 또한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증가한 육류소비량은 2028년에는 1인당 59kg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eo, 2019). 이처럼 증가하는 육류소비량은 공장축산방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공장축산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의 동물복지 문제 및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Shin, 2018).

맹자는 동물이 죽으면서 우는 것을 보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성품이 발달한 사람이니, 도덕성품이 발달한 사람은 고기를 먹기 위해 도살장을 멀리 해야 한다고 했다(Kim, 2018). 이 말은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물을 사랑하면서 고기를 먹는 행동의 모순을 도덕성의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키우는 소를 사랑하고, 고통당할 것을 걱정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다른 소가 도살되어 제품으로 포장된 고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는 행동은 이 고기를 공급하는 동물을 모를수록 더 증가한다(Hoogland, de Boer, & Boersema, 2005). 이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심리적 불편감을 겪지 않기 위해 접시에 놓인 고기요리의 원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동기화된다는 최근

의 연구(Bastian, Loughnan, Haslam, & Radke, 2012)와도 연결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Gray, Gray와 Wegner(2007)에 의하면 마음(mind)은 경험(experience)과 주도성(agency)의 차원으로 정의된다. 마음지각(mind perception)은 특정대상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예: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예: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가?)을 갖고 있는지를 평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 대상의 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추론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지각의 정도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도덕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고, 그 대상을 해치는 행동이 비도덕적으로 평가된다. Gray 등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마음지각을 경험의 차원과 주도성의 차원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였으며, 마음지각이 그 대상과의 관계(예: 호감)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의 마음에 대한 직관적 추론이 인지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이 특정 대상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동물을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에서 고기가 아닌 동물로 기술한 통제조건에 비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평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려 한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실험조건에서 동물을 살아있는 전체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기로서 활용되는 음식재료로

보는 관점을 활성화시킬 때, 이러한 관점이 다른 대상(예: 성적 객체화된 여성)을 보는 시각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지부조화 이론

Festinger(1957)는 인지(cognition)를 한 개인의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의 행동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이 서로 불일치할 때,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흡연이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인지부조화에 해당한다. Festinger(1957)는 그의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서 한 개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불일치를 줄이려는 시도가 동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부조화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은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태도 또는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시켜 불일치했던 요소들이 서로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거나, 혹은 불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동물을 사랑하면서 고기를 먹는 개인의 경우, 동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예: 동물은 정서를 느끼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 행동을 취하여(예: 채식주의자)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는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다양한 이유(예: 단백질 섭취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를 추가하여 모순적 행동을 합리화한다. 또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고기를 먹는 행동 간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모순적 관계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Bastian 등(2012)은 한 개인이 동물을 사랑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면, 자신의 태도와 행동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낳기 때문에 불일치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에게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질문지(Haslam et al., 2008)(예: 이 동물은 공포를 느낄 능력이 있습니까?, 이 동물은 스스로 자기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에 답하게 한 후, 고기요리의 원천인 동물을 생각하게 한 실험조건(심리적 불편감이 높음)과 과일요리의 원천인 과일을 생각하게 한 통제조건(심리적 불편감이 낮음)에서 작문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마음지각 질문지의 사전사후 비교를 한 결과, 연구참가자가 고기요리의 원천을 생각했던 실험조건에서 고기의 원천을 생각하기 전보다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이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경향은 과일요리의 원천을 생각한 통제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마음지각 정도는 고기요리의 원천을 생각한 실험조건에서 과일요리의 원천을 생각한 통제조건보다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연구참가자에게 고기의 원천을 생각하게 한 실험조건에서는 과일요리의 원천을 떠올리게 한 통제조건보다 심리적 불편감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낮추는 방향으로 참가자들이 동기화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 고기를 먹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고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문제시되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고기를 먹는 행동의 모순적 관계가 일상에서 도덕성과 연결된 다양한 행동을 동기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떤 결정이 더 옳다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대상을 해치기도 하고, 또는 원래 옳다고 생각했던 결정과 자신의 태도에 어긋나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이 대상을 해치는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대상을 도구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 간의 모순적 관계는 도덕성의 주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 주제를 도덕성과 연관된 주제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학문적 맥락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는 극히 소수(예: Bastian et al., 2012)에 불과하다.

그동안 마음지각에 대한 선행연구(Epley & Waytz,

2009)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에서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마음지각이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동기화된 마음지각(motivated mind perception)은 한 개인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지각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수시로 변화함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상대방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마음지각이 높아지지만, 상대방을 해친 행동에 대해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때(Bandura, 1999),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Kozak, Marsch, & Wegner, 2006), 자신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Castano & Giner-Sorolla, 2006). 본 연구에서는 마음지각이 한 개인의 현재 상태와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물을 인생을 같이 하는 반려동물로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동물을 고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과 도덕적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 마음지각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2.2. 대상화 이론

Bastian 등(2012)에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와 고기를 먹는 행동 간의 모순적 관계를 인지부조화이론을 통해 설명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외부 상황에 따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아지는 경향을 객체화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객체화 또는 대상화의 개념을 인간을 전체적 존재로 보지 않고, 활용되는 대상으로서 일부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을 전체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체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동물을 예전부터 인간이 활용해야 하는, 정서가 없는 대상(예: 요리 재료, 교통수단)으로 인식해왔던 것도 객체화에 속한다(Epstein, 2002). 객체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성의 성적 객체화

(sexual objectification)의 주제를 다루었다. 성적 객체화에서 주목할 것은 인간을 활용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타인으로부터 내면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에도 전이된다는 것이다. 또한 Harris와 Fiske(2006)에서는 마약중독자, 노숙자 또는 성적 객체화된 여성과 같은 사회적 낙인집단의 사진자료를 제시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마음지각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인 내측 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이 기저선보다 활성화되는 정도가 낮아 성적 객체화된 여성과 같은 사회적 낙인집단을 비인간화하고, 마음의 차원에서 낮게 평정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Cikara, Eberhardt와 Fiske(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제시하여 성적 객체화를 조작한 실험조건과 일반적 의복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이 제시된 통제조건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비교하였을 때, 연구 참가자들이 성적 객체화된 여성과 일인칭동사(예: handle)의 자극쌍에 일반적 의복을 입은 여성 사진과 삼인칭동사(예: handles)의 자극쌍보다 더 빨리 반응함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특정 대상을 객체화하여 자신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그 대상보다는 연구 참가자 자신을 행위자로 보게 하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가 일인칭 동사를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더 빨리 떠올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외부 상황에서 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활용되는 도구로서 객체화하면, 그 관점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 관점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커질수록 동물과 인간을 객체화된 시각으로 인식하여, 대상에 대한 마음지각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을 요리에 활용되는 고기로 객체화하는 상황이 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검증해보려 한다. 객체화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타인의 시각을 내면화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객체화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면, 동물을 객체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동물과 다른 인간에 대한 마음지각을 변화시킬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객체화가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의 도덕성 평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 간에는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예: Basitan, Loughhan, Haslam, & Radke, 2012)에서는 마음지각(Gray et al., 2007)을 경험의 차원과 주도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특정 동물이 감정을 경험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어떤 활동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마음지각은 우리가 동물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동물을 해치는) 고기를 먹는 행동 간의 불일치(Festinger, 1957)를 줄이고자 하는 심리적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실제로 그 동물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지각은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심리적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에 따라 연구 1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의 정도가 낮아질 것을 예측한다. 또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을수록 고기를 먹는 행동을 비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낮을 것을 예측한다. 둘째, 연구 2의 목적은 고기를 먹는 행동과 인간에 대한 대상화(objectification)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대상화에 대한 선행연구(Fredrickson & Roberts, 1997)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전체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신체 일부 등의 활용가능한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대상화되는 상황(예: 성적 대상화된 여성)에서는 도구화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여 대상화를 조작한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mind perception)을 낮추어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이 줄이려는 태도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또한 동물을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에서 고기가 아닌 동물로 기술한 통제조건에 비해 성적 객체화된 여성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려 한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동물을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을 것을 예측한다. 또한 동물을 고기로 제시한 실험조건에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낮춘다면,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감소되어, 고기요리를 먹겠다는 의향이 통제조건보다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64명(남 = 20, 평균연령 만 24.46세, 표준편차=4.01)이 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전 원 상당의 커피쿠폰의 보상을 받았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참가자에게는 동물에 대한 마음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소개하였으며,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참가자에게는 선행연구(Gray et al., 2007; Bastian et al., 2012)를 기반으로 선택한 열 종류의 동물(소, 돼지, 말, 개, 염소, 닭, 토끼, 새우, 고양이, 돌고래)의 마음을 경험의 차원과 주도성의 차원에서 각각 7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음지각 질문지는 Gray 등(2007)을 기반으로 경험의 차원에 5개의 문항(예: 이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갖고 있다)을, 주도성의 차원에 5개의 문항(예: 이 동물은 자신의 계획을 세울 능력이 있다)을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마음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2에서 .91로 나타났다. 이후 참가자들은 도덕성 과제를 수행하였다. 도덕성 과제에는 Bastian 등(2012)을 토대로 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이 동물을 해친다면 마음이 불편한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고(1: 전혀 일치하지 않음, 7: 매우 일치함), 두 번째 문항에서는 이 동물의 고기를 먹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참가자들에게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했다(1: 전혀 나쁘지 않다, 7: 매우 나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에게는 채식주의자 여부를 응답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 중에서 1명의 채식주의자가 있었으며, 이 참가자의 자료는 결과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2. 연구 2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77명(남 = 33, 평균연령 만 22.36세, 표준편차=3.32)이 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전 원 상당의 커피쿠폰의 보상을 받았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2의 절차는 사진과제부터 시작하였다. 사진과제에서는 소가 풀을 뜯는 사진을 제시하였다. 사진과제에서는 소가 도살되어 요리재료로 사용되는 고기조건과 소가 동물로 제시되는 통제조건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사진과제에 사용된 사진은 소가 동물로 고기조건인 실험조건(n=39)과 통제조건(n=38)에서 모두 동일했고, 선행연구(Bastian et al., 2012)를 참조하여 소가 방목장에서 풀을 뜯으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문장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실험조건에서는 소가 방목장에서 도살되어 요리 용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조작점검을 위해 연구참가자가 사진과 글을 주의깊게 볼 수 있도록 사진과 글의 내용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실험조건에서는 소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소고기는 본문에서 어떤 요리로 사용되는지를 물어보았다. 반면 통제조건에서는 소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이 사진에서 소와 양이 같은 장소에 있는지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연구참가자 중에서 조작점검 문항에 오답을 한 개라도 한 경우 자료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총 참가자 89명중에 12명의 참가자 자료를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이후 연구참가자는 연구 1과 동일한 마음지각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2에서 마음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는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평정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에서 참가자는 연구 1과 동일한 2개의 문항(소를 해치게 될 경우 마음이 불편한 정도, 소고기를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정도)을 7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추가적으로 소고

기 음식을 제공받게 될 경우, 참가자 자신이 먹을 의향이 있는 정도를 7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 이후 연구 참가자는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의 인물에 대한 마음지각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사진은 성적 객체화에 관한 선행연구(Bevens, Brown, & Loughnan, 2018)에서 자극재료로 사용한 사진이었다. 성적 객체화에 대한 마음지각 질문지는 소에 관한 마음지각 질문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채식주의자 여부인지를 응답한 후, 연구가 종료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참가자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연구 1에서는 다양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열 종류의 동물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2에서도 마찬가지로 SPSS 18.0을 사용하여 동물을 고기로 제시한 실험조건과 고기가 아닌 동물로 제시한 통제조건에 따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평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연구 1의 분석 결과 및 논의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및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관계

연구 1에서는 Table 1과 같이 열 종류의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 및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평정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음지각은 선행연구(Bastian et al., 2012)를 참조하여 각 동물에 따라 경험과 주도성의 두

개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46에서 .87로서 유의하게 나타나, 이 두 차원을 단일차원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다양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1과 같이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도덕성 평정과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서 동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으로 열 종류의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분석한 결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 567) = 12.59, p = .001, \eta_p^2 = .41$. Fig. 1과 같이 열 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평균 점수와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열 개 동물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점수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32, p = .008$. 개별 동물을 분석하였을 때도,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높았다(부록 참조). 예를 들어, 소에 대한 마음지각과 소를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45, p = .000$. 또한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열 개 동물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점수와 각 동물의 고기를 먹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평정한 평균 점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7, p = .037$.

연구 1의 결과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해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관계는 유의했다. 따라서 연구참가자에게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판단은 동물이 어느 정도 정서를 경험하고, 주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지각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과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판단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과 고기의 연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1은 선행연구(Loughnan et al., 2014; Bastian et al., 2012)에서 보고한 동물에 대한 태도와 고기를 먹는 행동의 모순적 관계와 잘 일치된다.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높기 때문에, 고기요리를 먹게 된다면,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고자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낮출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mind perception, moral concern of meat eating and negative affect with harming animals regarding ten animals

animals	mind perception	moral concern	negative affect
pig	4.25 (1.17)	2.15 (1.41)	4.97 (2.12)
cow	4.24 (1.15)	2.18 (1.44)	5.06 (2.16)
dog	4.82 (1.17)	3.93 (2.18)	5.87 (1.83)
chicken	3.88 (1.29)	1.96 (1.15)	5.03 (2.10)
goat	4.08 (1.21)	2.51 (1.30)	5.03 (2.10)
rabbit	4.08 (1.27)	2.81 (1.54)	5.35 (1.96)
shrimp	3.25 (1.42)	1.93 (1.39)	3.65 (2.18)
horse	4.53 (1.24)	2.96 (1.83)	5.18 (2.04)
cat	4.82 (1.20)	4.10 (2.28)	5.82 (1.77)
dolphin	4.94 (1.27)	4.20 (2.21)	5.71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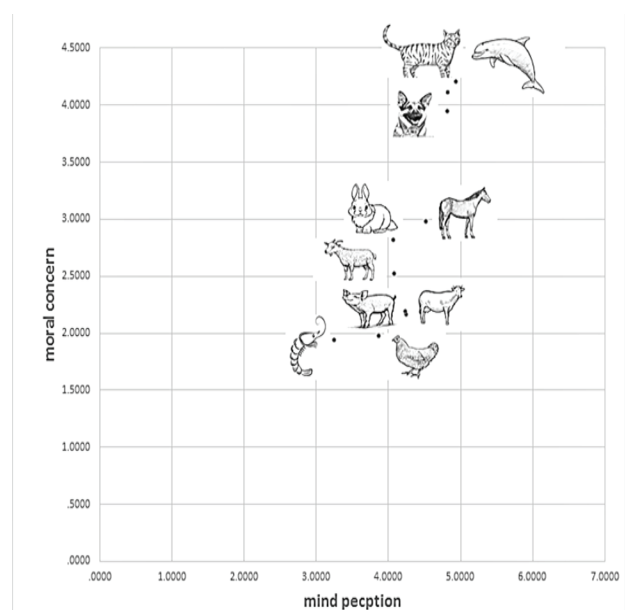


Fig. 1. Scatterplot of mind perception and moral concern ratings, Study 1

연구 1에서는 연구참가자에게 고기요리를 먹을 의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의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상황 변인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가자에게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수행할 때, 동물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살아있는 동물로서 보는지 또는 요리에 사용되는 고기로 보는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외부 상황에서 동물을 고기로 사용되기 위해 도살되는 가축으로 제시하여, 연구참가자의 마음에 동물의 개념보다는 고기의 개념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동물을 해

치는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동물로 제시되는 통제조건보다 더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는 실험조건에서는 고기가 아닌 통제조건보다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더 낮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 2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는 객체화가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뿐만 아니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는 객체화가 다른 대상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더 낮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2. 연구 2의 분석 결과

고기조건(실험)과 고기가 아닌 동물조건(통제)에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고기조건과 고기가 아닌 조건에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고기조건 (M = 3.92, SD = .95)에서 고기가 아닌 조건(M= 4.74, SD = .82)보다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t(75) = -4.032, p = .000$. 이 결과는 고기조건에서 고기가 아닌 조건보다 고기를 먹는 행동과 동물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가 크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정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연구참가자가 동기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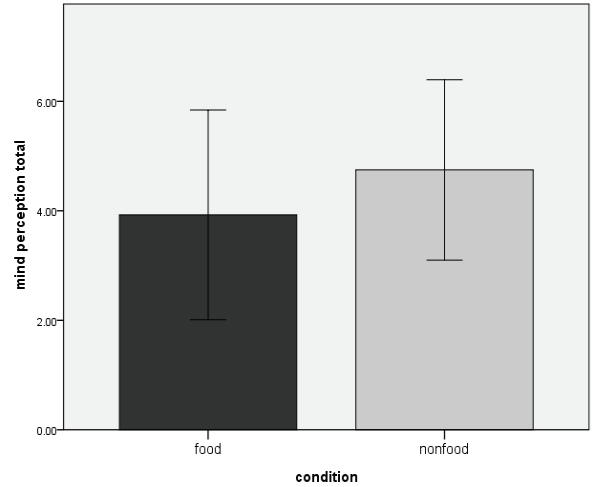


Fig. 2. Graphed means for mind perception toward cows in the food and in the nonfood condition, Study 2

고기조건(실험)과 고기가 아닌 동물조건(통제)에서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고기를 먹을 의향 및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윤리성 평정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고기조건과 고기가 아닌 조건에서 연구참가자들이 응답한 고기를 먹을 의향,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및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윤리성 평정에 대한 평균을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의하면, 고기 요리를 먹겠다는 의향은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t(75) = 2.132, p = .036$. 심리적 불편감과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윤리성 평정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ind perception, edibility, moral concerns and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ows in the meat condition and in the control condition, Study 2.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meat condition					
1. mind perception toward cows	3.92 (.95)				
2. edibility	6.15 (.82)	.17			
3.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57 (1.26)	.09	-.47**		
4.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ows	5.82 (1.41)	.31*	-.02	.20	
5. mind perception toward sexualized women	3.57 (.81)	.25	.01	.28	.16
control condition					
1. mind perception toward cows	4.74 (.82)				
2. edibility	5.58 (1.42)	-.02			
3.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66 (1.60)	.09	-.25		
4.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ows	6.18 (1.18)	-.03	-.03	.24	
5. mind perception toward sexualized women	3.83 (.93)	.24	-.01	.14	.41**

* $p < .05$, ** $p < .001$

한편, 소를 고기로 제시한 실험조건에서 소에 대한 마음지각, 고기를 먹을 의향, 심리적 불편감 및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윤리성 평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에 대한 마음지각은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31, p = .032$. 따라서 소가 고기로 제시되는 실험조건에서는 참가자가 소의 마음지각을 낮게 할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이 고기를 먹겠다는 의향은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비윤리성 평정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35, p = .002$. 이 결과는 참가자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더 많이 응답할수록 고기를 먹는 행동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소가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로 제시되는 통제조건에서는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9, p = .009$. 따라서 동물이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로서 제시되면,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해서도 마음지각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기조건(실험)과 고기가 아닌 동물조건(통제)에서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 비교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는 실험조건과 고기로 제시하지 않는 통제조건에서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조건: 고기, 고기가 아님) * 2(마음지각 대상: 동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따라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변인은 참가자간 변인이며, 두 번째 변인은 참가자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

하였다, $F(1, 75) = 14.46, p = .001, \eta_p^2 = .16$. Fig. 2와 같이 고기조건($M = 3.74, SD = .87$)에서는 고기가 아닌 조건($M = 4.29, SD = .86$)보다 전반적으로 마음지각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마음지각 대상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 75) = 19.64, p = .001, \eta_p^2 = .20$. 소에 대한 마음지각($M = 4.30, SD = .76$)은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M = 3.70, SD = .8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비인간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¹⁾. 또한 Fig. 3과 같이 조건과 마음지각의 상호작용의 경향이 유의하였다, $F(1, 75) = 3.81, p = .049, \eta_p^2 = .05$.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의하면, 고기조건은 고기가 아닌 조건에서 소에 대한 마음지각이 유의하게 낮았다, $t(75) = -4.032, p = .000$. 이에 비해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은 고기조건에서 고기가 아닌 조건보다 마음지각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t(75) = 2.012, p = .092$. 이 결과는 동물을 고기로 제시하는 것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에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고기조건은 이 두 대상 모두에 대한 마음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1)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인간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Haslam 등, 2005).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현상이지만, 비인간화의 개념을 심리학에서 이론적 및 체계적으로 접근한 시도는 Haslam(2006)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성(humanness)은 인간 본성(human nature)과 인간 고유성(human uniqueness)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하위특성으로 구분된다. 인간본성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특성(예: 감정을 느끼는)이며, 인간고유성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개념(예: 도덕적인)이다. 그동안 비인간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종, 피부색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Jahoda(1999)는 원시부족이나 아프리카계 흑인이 인간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자주 돼지나 쥐와 같은 동물 또는 기생충과 같은 벌레와 비교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동물이나 벌레에게 부여되는 특성(예: 합리적 이성이나 깊이가 없으며, 원초적임)은 자주 대량학살 상황(예: 유대인 학살, 르완다 집단 학살)의 피해자(Chalk & Jonassohn, 1990)나 이주 노동자(O'Brien, 2003), 장애인(Bogdan & Taylor, 1989) 또는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의 성적으로 객체화된 여성(Fredrickson & Roberts, 1997)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특정 집단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배제한다면, 이 집단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해도 불편한 마음을 느끼거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Table 3. ANOVA of condition and mind perception toward cows and sexualized women, Study 2

Source	SS	df	MS	F	p	η^2
condition	15.34	1	15.34	19.63	.00**	.21
mind perception	2.98	1	2.98	3.81	.05	.05
error	58.57	75	.78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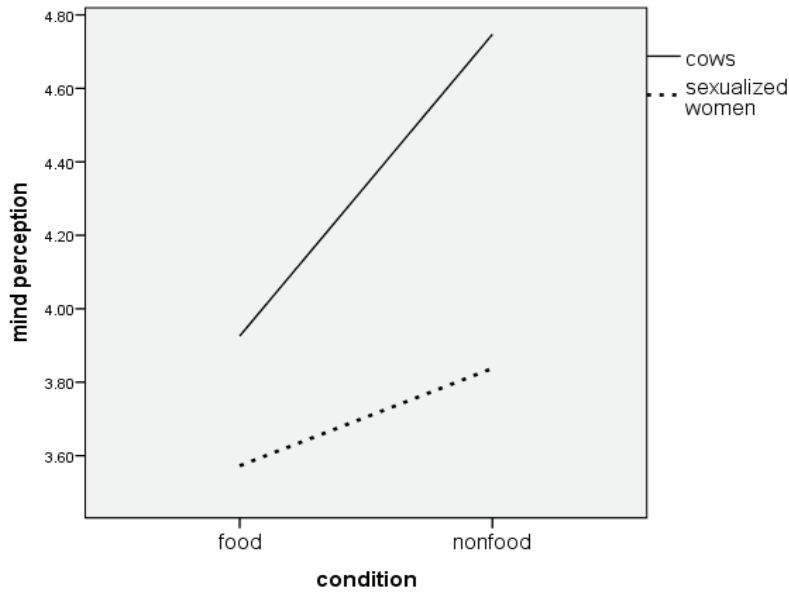


Fig. 3. Graphed interactions for mind perception toward cows and sexualized women in the food and in the nonfood condition, Study 2

연구 2에서는 고기조건과 고기가 아닌 조건에 따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달라지고, 고기를 먹겠다는 의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며, 선행연구(Bastian et al.,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기조건에서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동물을 사랑하지만, 고기를 먹는 행동을 인지부조화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동물을 활용되는 대상으로서 객체화하는 상황이 다른 인간에 대한 마음지각에도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의 관계를 두 개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 지각의 정도가 낮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낮았다. 또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정도가 낮을수록 고기를 먹는 행동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도덕성 평정이 낮았다. 이 결과는 인지부조화이론에 따라 고기를 먹는 행동과 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고자 동물에 대

한 마음지각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소를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과 고기가 아닌 동물로 기술한 통제조건에서 소에 대한 마음지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를 고기로 기술한 실험조건에서는 통제조건보다 소에 대한 마음지각과 통제조건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물이 ‘고기’로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조정을 통해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마음지각과 인지부조화이론이 일상에서의 도덕성과 연관된 태도와 행동의 모순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고기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특정 대상을 도구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대상화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동물을 활용되는 도구로 인식하는 대상화가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지각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고기를 먹는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

기를 먹는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을 낮춘다는 결과는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와 고기를 먹는 행동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Loughnan 등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기를 먹는 조건과 고기가 아닌 동물조건에 따라 인지부조화이론을 토대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이 설계는 집단간 설계로서 한 개인의 조건에 따른 태도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고기를 먹기 전과 후의 조건으로 구분하여 참가자내 설계를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이 고기를 먹는 행동을 선택하기 전과 후에 따라 동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을 동물이 고기로 제시되는 실험조건과 고기가 아닌 통제조건에서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은 동물을 고기로 제시한 실험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 결과는 동물을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라 활용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에 대한 마음지각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양한 사회적 낙인집단(예: 장애인, 마약중독자)을 바라보는 관점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마음지각과 그 대상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도덕성 평정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 대상이 어느 정도 마음(정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주도성을 지님)을 갖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도덕적 지위(moral status)를 부여하는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 개, 고양이 및 돌고래가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해치는 행동을 심리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행동을 가장 비윤리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개, 고양이 및 돌고래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행동을 비윤리

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과 도덕적 지위의 관계에서 문화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동물을 요리에 사용되는 고기로서 인식하는 것이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태도와 고기를 먹는 행동의 모순적 관계를 인지부조화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을 대상화이론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비인간화와 도덕성에 대한 선행연구(Bandura, 1999)와도 일치하지만, 인지부조화이론과 대상화이론을 접목시켜 일상에서 관찰되는 태도와 행동의 모순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마음지각과 도덕성의 관계를 다양한 일상의 사회적 맥락에서 검증하고, 한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상황의 영향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마음지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기를 먹는 행동과 동물을 해치는 행동을 도덕성의 맥락에서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한 개인이 동물을 고기로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면,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게 바뀌었다. 이 결과는 육류제품소비를 위해 동물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고기를 먹는 행동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고자 마음지각을 낮추려는 책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을수록 동물을 해치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낮아지고, 고기를 먹는 행동을 떠올리게 되면 동물과 성적 객체화된 여성에 대한 마음지각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에서 동물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동물의 고기를 소비하는 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김영환 (2018. 8. 11). 맹자가 말한 개를 먹지 말아야 할 철학적 이유.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57162.html
- 서유진 (2019.1.22). 한국인 식성 변화, 곡물·채소↓ 과일·고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311217>
- 신소윤 (2018.12.30). 고기를 먹는다는 건,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76293.html
- 윤승민 (2016. 4. 15). 한국인 1인, 1년간 먹는 육류량 51.3 kg.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93-209. DOI: [org/10.1207/s15327957pspr0303_3](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303_3)
- Bastian, B., Costello, K., Loughnan, S., & Hodson, G. (2012). When closing the human-animal divide expands moral concer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6, 100-107. DOI: [org/10.1177/1948550611425106](https://doi.org/10.1177/1948550611425106)
- Bastian, B., Loughnan, S., Haslam, N., & Radke, H. (2012). Don't mind meat? The denial of mind to animals used for human consump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247-256. DOI: [10.1177/0146167211424291](https://doi.org/10.1177/0146167211424291)
- Bevens, C. L., Brown, A., L., & Loughnan, S. (2018).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and women's blame, sympathy, and support for a rape victim. *PLoS ONE*, 13, e0199808. DOI: [org/10.1371/journal.pone.0199808](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9808)
- Cikara, M., Eberhardt, J. L., Fiske, S. T. (2010). From agents to objects: Sexist attitudes and neural responses to sexualized target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3, 540-551. DOI: [10.1162/jocn.2010.21497](https://doi.org/10.1162/jocn.2010.21497)
- Epley, N., & Waytz, A. (2009). Mind percept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sa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498-541). New York, NY: Wiley.
- Epstein, R. A. (2002). Animals as Objects, or Subjects, of Rights. *University Chicago Law &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171. DOI: [10.2139/ssrn.359240](https://doi.org/10.2139/ssrn.359240)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ke, S. T., Cuddy, A. J. C.,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 77-83. DOI: [org/10.1016/j.tics.2006.11.005](https://doi.org/10.1016/j.tics.2006.11.005)
- Foer, J. S. (2009). *Eating animals*. New York, NY: Little, Brown.
- Haslam, N., Bain, P., Douge, L., Lee, M., & Bastian, B. (2005). More human than you: Attributing humanness to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73-950. DOI: [10.1037/0022-3514.89.6.937](https://doi.org/10.1037/0022-3514.89.6.937)
- Harris & Fiske (2006). Dehumanizing the lowest of the low: Neuro-imaging responses to extreme out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7, 847-853. DOI: [10.1111/j.1467-9280.2006.01793.x](https://doi.org/10.1111/j.1467-9280.2006.01793.x)
-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52-264. DOI: [org/10.1207/s15327957pspr1003_4](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1003_4)
- Haslam, N., Loughnan, S., Kashima, Y., & Bain, P. (2008). Attributing and denying humanness to other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9, 55-65. DOI: [org/10.1080/10463280801981645](https://doi.org/10.1080/10463280801981645)
- Haslam, N., Kashima, Y., Loughnan, S., Shi, J., & Suitner, C. (2008). Subhuman, inhuman, and superhuman: Contrasting humans with nonhumans in three cultures. *Social Cognition*, 26, 248-258. DOI: [org/10.1521/soco.2008.26.2.248](https://doi.org/10.1521/soco.2008.26.2.248)
- Hoogland, C., de Boer, J., & Boersema, J. (2005). Transparency of the meat chain in the light of food culture and history. *Appetite*, 45, 15-23. DOI: [10.1016/j.appet.2005.01.010](https://doi.org/10.1016/j.appet.2005.01.010)
- Fredrickson, B. L., &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 Women Quarterly*, 21, 173-206.
DOI: 10.1111/j.1471-6402.1997.tb00108.x
- Gray, K., Young, L., & Waytz, A. (2012) Mind perception is the essence of morality. *Psychological Inquiry*, 23, 101-124.
DOI: 10.1080/1047840X.2012.651387
- Gray, K., Knobe, J., Sheskin, M., Bllom, P., & Baret, L. F. (2011). More than a body: Mind perception and the nature of objec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1207-1220.
DOI: 10.1037/a0025883
- Gray, H. M., Gray, K., & Wegner, D. M. (2007). Dimensions of mind perception. *Science*, 315, 619.
DOI: 10.1126/science.1134475
- Jahoda, G. (1999). *Images of savages: Ancient roots of modern prejudice in western culture*. London: Routedge & Kegan Paul.
- Kozak, M., Marsch, A., & Wegner, D. (2006). What do I think you'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mi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543-555. DOI: org/10.1002/ejsp.755
- Loughnan, S., Haslam, N., Murnane, T., Vaes, J., Reynolds, C., & Suitner, C. (2010). Objectification leads to depersonalization: The denial of mind and moral concern to objectified oth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709-717.
DOI: org/10.1002/ejsp.755
- Puvia, E., & Vaes, J. (2013). Being a body: Women's appearance related self-views and their dehumanization of sexually objectified female targets. *Sex Roles*, 68, 484-495.
DOI: 10.1007/s11199-012-0255-y
- Son, E. (2006). The influence of objectification experiences on Women'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 399-417.

원고접수: 2019.05.27

수정접수: 2019.06.24

게재확정: 2019.06.26

Appendix.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ind perception, moral concerns and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animals (Study 1)

	Mean (SD)	correlations	
Cow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cows	4.24 (1.15)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18 (1.44)	.12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ows	5.06 (2.16)	.45**	.38**
Pig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pigs	4.25 (1.17)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15 (1.41)	.14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pigs	4.97 (2.12)	.34**	.37**
Dog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dogs	4.82 (1.17)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3.93 (2.18)	.21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dogs	5.87 (1.83)	.38**	.42
Chicken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chickens	3.88 (1.29)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1.96 (1.15)	.04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hickens	5.03 (2.16)	.29*	.35**
Goat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goats	4.08 (1.21)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51 (1.30)	.19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goats	5.03 (2.10)	.35**	.44**
Rabbit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rabbits	4.08 (1.27)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81 (1.54)	.10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rabbits	5.35 (1.96)	.27*	.37
Shrimp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shrimps	3.25 (1.42)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1.93 (1.39)	.41**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shrimps	3.65 (2.18)	.49**	.51**
Horse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horses	4.53 (1.24)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2.96 (1.83)	.22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horses	5.18 (2.04)	.45**	.36**
Cat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cats	4.82 (1.20)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4.19 (2.28)	.25*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cats	5.82 (1.77)	.46**	.51**
Dolphin		2	3
1. mind perception toward dolphins	4.94 (1.27)		
2. moral concerns associated with eating meat	4.20 (2.21)	.23	
3. negative affect associated with harming dolphins	5.71 (1.80)	.33**	.56**

* $p < .05$, ** $p < .01$